

인천 독서대전 공모전 [아이디어]

4. 슬기로운 독서 콕! 생활

⑦ 현황과 문제점

코로나19시대, 독서의 계절인 가을이 무색할 만큼 도서관도 서점도 자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전자책으로 집에서 독서를 해보지만 이마저도 인기도서는 이미 예약자가 많기 일쑤여서 막상 대출되는 시기에는 흥미를 잃어 독서하는 것이 흐지부지 된다.

도서관이 우리 생활에 밀접해 있지만, 멀게 느껴지는 건 왜 일까?

많은 도서관이 언택트 방법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 대출에 대한 접근성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현재 전국 곳곳 도서관에서 코로나로 인한 도서대출 방법으로 도서관내 이용제한 대출, 드라이브수루 대출, 택배대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무료택배대출 서비스는 대부분 소외계층(장애, 임신, 육아)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일반 이용자에게는 혜택이 제한된다.

이에, 인천시민의 독서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⑧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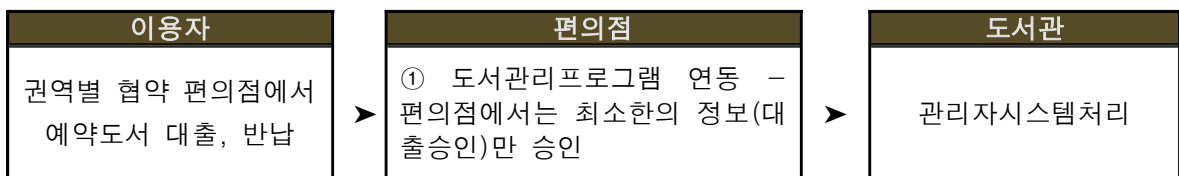
□ 슬기로운 독서 콕! 생활 (Title)

1. <편의점 독서 콕! 생활> (Subtitle)

- 편의점 출점이 본격화 된지도 30년쯤 되어 가며, 점점 확장되고 있다. 코로나시대 편의점 시장은 유통업계 중 유일하게 성장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결과자료 참고)
- 최근에는 MZ세대를 겨냥해 다양한 기업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판매상품 또한 전문성과 다양성을 겸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택배서비스, 휴대폰충전, 공과금납부서비스, 모바일앱을 통한 상품추천 등)
- 이처럼 편의점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업종 중에 하나이며, 가까운 곳에 있어 접근성 또한 쉽다.
- 이를 모티브로 하여 “편의점과 도서관 콜라보레이션으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어떨까?

가. 찾아가는 서비스 : 상호대차서비스처럼 권역별로 도서관 근처 편의점에서 예약도서를 제공받거나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코로나로 인한 도서관 휴관 및 이용자 제한출입 시 이용자편의 개선으로 독서의 접근성을 확대해 본다.

1) [시스템 구축 시] 서비스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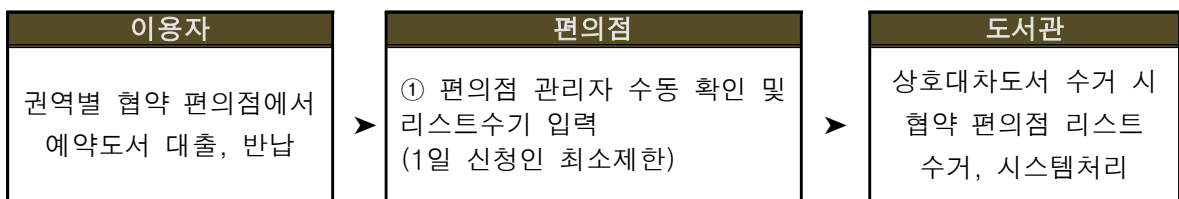
- 세부시스템 구축 사항

- ① 이용자용 시스템(회원가입, 서비스소개, 신청도서 이력 등)
- ② 편의점용 시스템(신청도서 승인)
- ③ 도서관 관리자용 시스템(이용자 신청이력, 편의점별 승인이력, 도서관리시스템 연동, 통계프로세스 등)

-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 : 약3,000만원(추정)

(※ 타지역 지역서점바로대출서비스 시스템 및 홈페이지 연동 구축비 참고)

2) [시스템 미 구축 시] 서비스 흐름도



3) 도서 반납 시

- 편의점 출입구에 반납함 설치, 상호대차 도서 수거 시 편의점 반납도서 추가 수거

나. 다독자 및 도서관 이용 WIP회원 관리 서비스 : 도서관은 도서회원카드로 무료로 이용한다. 대부분 도서관 대출권수는 1인당 5권, 통합 20권 대출할 수 있다. 학부모의 경우 방학시즌에는 더 많은 도서를 대출하는 경우가 많다. 연간 도서대출 수가 많으면 대출권수를 늘려주기도 하는데, 대출권수 확대와 더불어 도서관을 꾸준히 이용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자주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편의점에서 사용가능한 지역이음카드나 편의점 교통카드 연계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방법은 어떨까?

(※Toss 앱 - 만보 시 40원 지급, 당근마켓 앱 - 만보 시 기부 등 참고)

1) 운영방법

- 일간 또는 월간 인천시 도서관 내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횟수 및 도서대출 권 수 포함 또는 각각 지정한 횟수에 도달 시 포인트, 지역이음카드 등 지급

2) 소요예산 : 10,000천원(※ 5,000원 x 2,000명)

2. <인천시를 알리는 독서반납함 제작 및 비치> (Subtitle)

- “인천시만의 도서관 또는 독서를 상징하는 캐치프레이즈가 새겨진 독서반납함”을 제작하면 어떨까?
- 해외 사례를 보면 도서관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이색적인 독서반납함을 제작하여 비치하고 있다.
- 인천시만의 고유한 독서 캐치프레이즈를 제작하여 인천시 전역에 동일한 독서반납함을 비치한다면 인천시 도서관이나 독서문화를 떠올릴 때 기억에 남지 않을까?



가. 제작방법

- 각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반납함 규격사이즈 조사
- 스티커형 제작 및 배포

나. 소요예산 : 10,000천원(추정)(※ 인천시 공공도서관 55개관 배포)

3. < “나의 Book 세포들” > (Subtitle)

- 최근 이슈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패러디한 것으로 감성세포, 상상세포, 사랑세포, 패션 세포, 설레발 세포, 다이어트 세포, 집안일세포 등 독자와 접목하여 나의 “Book 세포들”을 통해 도서추천을 받으면 어떨까?
- “플라이북” 키호스크나 앱처럼 내 기분과 상황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인천시 “책읽는도시 인천 앱”에서 연계, 서비스 제공
(※ 플라이북이란? 기분, 관심사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AI 맞춤형 도서추천 서비스)
- 현재 플라이북 키호스크를 제공하는 도서관은 전국 88곳으로 이 중 인천시는 5곳에서 플라이북 키호스크를 제공하고 있다.



- 울적한날, 비오는날, 기쁜날, 사랑하고 싶은날 등 나의 Book 세포들에 따라 도서 추천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앱 구현
(※ 플라이북과 연계 필요)
- “책읽는도시인천” 앱 활용을 통해 인천시 도서관을 알리고 특색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기능추가 필요

가. 모바일앱 세부 구현 사항

- ① 도서관리시스템 연동(대출이력)
- ② 나이, 직업, 기분, 날씨 등 도서추천 콘텐츠 구현
- ③ 추천도서 인천 시 도서관 비치 현황 안내 및 예약신청 서비스 구현
- ④ 통계프로세스 등)

나. 소요예산 : 60,000천원(추정)(※ 타 자치구 모바일앱 구축비 참고)

(※ 플라이북 특허권 출원으로 협약 필요)

3.-1 < “나의 Book 세포들” > (Subtitle)

- 모바일앱 구현 시 장기간의 소요기간 필요하다면 단기간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독서 상담 예약서비스를 시행하면 어떨까?

가. 운영개요

- “나의 Book 세포들” 추천도서 서비스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메일링과 문자, 카카오톡채널 등을 통해 안내

나. 소요예산 : 비예산(※ 신청도서관 담당사서 제공)

⑨ 기대효과

- 선별된 양질의 정보를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정보서비스 질 향상 및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도서관 역할 수행
- 도서관 및 독서 접근성 확대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 개선 및 만족도 증대
- 인천시 도서관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독서 관심도, 인식을 제고